노스님 복지를 위한 승보공양
• AR5후원 : 049-700-1071(매월 1,000원)
• 직접신청 : 02)2011-1726, 3726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중앙은 승려복지대

# 佛敎新聞

신일상론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대우투어 daeseungtour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7년 5월 1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3월22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09호

# "간화선은 인류의 미래 이끌어갈 정신"

간화선 '종풍' 대선사 법희 선서화전 개막

진제 총정예하 입재식서 강조

▶관련기사 7면

간화선 종풍을 위한 대선사 법희 선서화전이 지난 4월24일 조계사 서울 조계사에서 막을 올렸다.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는 입재문답을 통해 간화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간화선은 세계종화 위한 대중의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캠퍼리에서 열린 선서화전에는 역대 고승과 현존하는 선지식들의 글씨와 그림 800여 점이 선보였다.

신재호 기자
sirfish@bulgyo.com

종단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의 종종을 위한 대선사 법희(法喜) 선서화전이 지난 4월24일 서울 조계사에서 막을 올렸다.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는 입재문답을 통해 간화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간화선은 세계종화 위한 대중의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캠퍼리에서 열린 선서화전에는 역대 고승과 현존하는 선지식들의 글씨와 그림 800여 점이 선보였다.

진제 종정예하는 "간화선 전성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말해지지만, 실은 부처님께서 간화선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을 뿐"이라며 "부처님께서는 임종전에 '여래께 위한 제노반사(法眼藏)에서 '벽어나보는가' 하는 간절한 의심 한 생각으로 6년 간 삼매(三昧)에 드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화미소(拈花微笑)", 다자탑전반분화(多子塔前半分化)", '곽시쌍부(槨示雙跗)' 등의 상화전심(二處傳心)을 통해 화상소의 진리의 세계를 열어보이셨고, 아리한 견성법으로 법을 전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근 선원에서 간화선이 아닌 위해서나 수행 등을 선종하는 한 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종정예하는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추어 가르치시는 불과정전 관법(觀法) 수행이 선원 내에서도 유포된다고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간화선은) 일체에 다른 방편을 구하지 않고 바로 여래지(如來地)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이며, 는 밖은 선지식을 만나 바르게만 지도 받는다면 한 생애 대해 마침 수 있는 원상수행법"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종정예하의 법문과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글씨와 그림을 종정예하께 대중에 공개하는 선시(詩), 주장법어(法語) 선개들 사이에서 도인으로 칭송받는 전강스님과 함곡스님부터 불퇴와 석정스님, 인현 효창스 법보선원장 종탁스님, 역대 종정 스님들의 작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 대선사 법희와 선서화전은 오는 2일까지 계속된다.

장영섭 기자 kim@bulgyo.com

## 최초 노동자 심리치유센터 조계종 노동위 '도반' 개설

조계사신도회관에---각계 전문가 참여

조계종이 종교계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자 심리치유 상담센터를 열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혼조 스님)는 지난 4월23일 조계사 신도회관에서 노동문제의 불교 해법을 내놓을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 현판식을 열었다. 그동안 개신교계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정사지원보고 그밖을, 가톨릭은 노동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심리상담 센터가 따로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노동위의 설명이다.

노동위원 불교상담개발원이 공동운영하는 '도반' 은 정리해고자와 경제 명예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농성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현장 상담을 벌인다. 이날 노동위와 불교상담개발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식도 가졌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센터에는 불교 상담과 노동 분야에 오랜동안 종사하고 활동가들이 상담사로 들어와 전문성을 높였다. 김명복 보광수련대장 선업스님, 이경 세 심리상담소장, 전 전국불련연동 동불법연구 교육부장이자 현현상담센터 상담사 박현진 씨가 상담을 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실을 이용하려 집단상담은 장기농성장 등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이 종교계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자 심리치유 상담센터를 열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불교 해법을 내놓을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 현판식을 열었다. 그밖만 개신교계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정사지원보고 그밖을, 가톨릭은 노동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심리상담 센터가 따로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노동위의 설명이다.

노동위원 불교상담개발원이 공동운영하는 '도반' 은 정리해고자와 경제 명예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농성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현장 상담을 벌인다. 이날 노동위와 불교상담개발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식도 가졌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센터에는 불교 상담과 노동 분야에 오랜동안 종사하고 활동가들이 상담사로 들어와 전문성을 높였다. 김명복 보광수련대장 선업스님, 이경세 심리상담소장, 전 전국불련연동 동불법연구 교육부장이자 현현상담센터 상담사 박현진 씨가 상담을 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실을 이용하려 집단상담은 장기농성장 등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종정예하는 "간화선 전성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말해지지만, 실은 부처님께서 간화선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을 뿐"이라며 "부처님께서는 임종전에 '여래께 위한 제노반사(法眼藏)에서 '벽어나보는가' 하는 간절한 의심 한 생각으로 6년 간 삼매(三昧)에 드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화미소(拈花微笑)", 다자탑전반분화(多子塔前半分化)", '곽시쌍부(槨示雙跗)' 등의 상화전심(二處傳心)을 통해 화상소의 진리의 세계를 열어보이셨고, 아리한 견성법으로 법을 전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근 선원에서 간화선이 아닌 위해서나 수행 등을 선종하는 한 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종정예하는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추어 가르치시는 불과정전 관법(觀法) 수행이 선원 내에서도 유포된다고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간화선은) 일체에 다른 방편을 구하지 않고 바로 여래지(如來地)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이며, 는 밖은 선지식을 만나 바르게만 지도 받

## 효행 교육지도상 영성한다

용주사-동국대 위탁교육 협약
6월12일 제1기 양성과정 개설

고령화, 왕따,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효행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효창대본산 용주사와 동국대학교가 손잡고 '효-예(孝-禮) 교육지도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정호스님)와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박경준)은 지난 4월22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효-예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위탁교육 협약' 을 체결했다.

효 교육지도사는 지난 2006년 8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설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제정에 맞춰 전국 대다수의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효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효행문화의 실현을 통해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효행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이뤄지게 됐다.

용주사는 교육장소와 관리 등을 제공하고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교육과정의 기획, 개발, 입학식, 수료식, 자격증 등을 협의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용주사는 오는 6월 12일부터 12월18일까지 부처님 오신 제1기 효-예 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용주사 연수국장 대면스님은 "효행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창대본산인 용주사에서 효행 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고 그 효 문화의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기자 chart1@bulgyo.com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여러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도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여러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을 시작합니다.
매월 한 달의 신문이라면 포교사 한명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현장이 열악한 군도, 소교회, 복지시설, 특수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신문 중 소하는 법보시에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한 선업을 짓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 주는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이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 복지기획사업부 (02) 730-4488 ▶ 문자전송 (010-4157-4406)

108산사순례기도회 '대지 동쳐서 만나고자 복 지어' 현장 12면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캐어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가솔인에 의해 직접 제일 사공합니다.
오색 연등 전시회
불교문화 전시회
주불 등
용왕기원등
연등 전시
양 기 등
관 음 등
부처님생애
전선(케이블) 연동송강장치 포스터용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송강장치 _ 홍은사
용왕대 인등
천덕연등의 개발한 새로운 개념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LED 전구 : • 기존 전기보급의 9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발광 시설으로 피어 화려한 분위기 특징 •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정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불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전등 · LED전구